



조 태 일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서울특별시 지회 회장
성애병원 진료부장

가협과 소중히 맺은 인연 14년

서울특별시 지회 발전을 기원하며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와 맺은 인연 14년

대한가족계획협회 서울특별시 지회 운영의원으로 인연을 맺은 지도 벌써 14년이나 되었다. 이제는 명칭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로 변경되었고 지금은 서울특별시 지회 회장이란 직책도 갖게 되었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짧지 않은 시간이었고 그동안 변화도 많았다.

1970년대는 세계보건기구의 후원과 정부 경제 정책에 발맞추어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을 시행하던 시절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산아 제한을 적극 권장하는 사업을 하였다.

이때 본인은 산부인과 레지던트로서 분만, 수술, 입원환자 관리 등의 바쁜 병원 근무를 하고 있었고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에 복강경 불임 수술 기구를 회사하여 난관 결찰 수술을 한 것이 대한가족계획협회와 맺은 실제적인 첫 인연이었다.

이 인연으로 다행히도 그 당시에 많은 복강경 불임 수술을 시행해본 경험이 요즘 보편화 된 산부인과 골반경 수술을 시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협회 활성화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출산율이 세계 최저가 되었고 분만도 줄어들고 피임 방법도 다양해지고 따라서 불임수술도 많이 줄게 되었다.

몇 년 전에는 서울특별시 지회에서 과거 복강경 불임 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 난관 복원 수술을 시행해준 적이 있는데 내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도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을 하여 기뻐하는 산모를 보고 이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도 방향 설정을 폭넓게 할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격세지감을 느꼈다.

과거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우리나라 의학에 여러 방면에 공헌한 공로는 누가 뭐래도 부

대한가족계획협회 서울특별시 지회 운영위원으로 협회 인연을 맺은지도 벌써 14년이 되었다. 그동안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라는 새 이름으로 변경되어 격세지감을 느낀다.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사업에 뒤를 이어 앞으로는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여 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

인할 수 없다. 그동안 쌓아온 가족계획에 대한 통계 자료 및 노하우로만 사장되기엔 너무 아깝다고 생각된다.

또한 협회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그 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존 의료 사업 외에 국민 복지에 필요한 영역을 개발하여 협회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알차게 봉사하는 일꾼되기

서울특별시 지회는 이제 여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가족계획 사업 외에 재가 노인복지 사업, 청소년 성 상담,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건강 진료 등 다양하다.

얼마 전 전국지회장 회의에서 해외 사업 프로젝트 설명회가 있었는데 공감하는 바가 컸다. 예전에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시행했던 사업들을 이것을 필요로 하는 나라에게 전수하여 도움을 주는 것도 보람된 일이고 과거 우리가 받았던 도움에 대한 보답이 아닐까 생각된다.

국제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 회의 참가와 중국을 비롯하여 동남아 국가들과 연계하여 상호 협회 직원 교환 방문 등도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협회에서 발행되는 월간지 「가정의 빛」은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와 소식을 전해주며 삶의 지혜도 더해주는 친근한 책자이다.

앞으로 과거 선배님들이 이루어 놓은 훌륭한 업적을 이어 나가고 최선을 다하여 알차게 봉사하는 협회가 되길 희망한다.